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서론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으며 성경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계시인 성경이 사랑과 성 그리고 결혼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고하게 고백해야 한다. 기독교의 진리가 정면으로 부정되고 왜곡될 때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그런 침묵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나의 신앙이 진정한 것인가를 의심케 만드는 행위이다. 내가 논쟁에서 이길 만큼의 철학적, 의학적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고백 공동체로서 공동의 신앙을 함께 한 몸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다 (엡 4:5 “믿음도 하나요”; 딤후 3: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beyond question(NIV); most certainly (CSB)] 하는 이 없도다”; 우리가 경건의 비밀에 대하여 공동체적 신앙 고백을 합니다” [ESV Great indeed, we confess, is the mystery of godliness”; NASB “By common confession,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NET “We all agree, our religion contains amazing revelation” -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합의하여 의심의 여지 없이 더 이상 논쟁의 여지 없이 다 고백해야 할 경건의 내용들이 있다. 오늘날과 같이 동성애를 기독교적이라고 주장했던 시대는 기독교 역사에서 없었다. 따라서 고대와 달리 오늘날 교회의 신앙 고백에는 삼위일체론 기독교 구원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진리가 포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한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간의 성과 결혼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가 고백해야 할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해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베드로는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한다 (벧전 3:15). 잘 알다시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소망의 이유를 변증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으라”는 뜻이다. 동성애에 대해 우리고 고백하는 내용을 변호하고 증명하기 위해선 성경의 반대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사랑과 성 그리고 결혼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성경에 익숙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들을 성경에 대한 왜곡된 해석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교정해야 할 지에 대해 살펴 보겠다.

본론

1. 성경이 말하는 커플로서의 사랑, 성, 그리고 결혼 [생물학적으로 한 남자인 남편과 한 여자인 아내의 결혼 안에서만 커플로서의 사랑과 성을 나눌 수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한다 (엡 5:1). 요한은 우리가 닮아야 할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본 받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요 1 서 4:8).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와 죄를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사랑이시며 거짓을 품는 사랑이 아니라 거짓을 부정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랑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벧전 1:16)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요 17:17). 따라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때도 불의와 거짓은 부정하며 거룩과 진실을 추구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특별히 결혼과 성과 관련된 사랑은 단순한 로맨틱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언약임을 강조한다. “아내와 합하여”에서 사용된 합하다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던 동사이다.

창 2:24 “이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과 번성을 위하여 창 1:28]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Gen 2:24 This is why a man leaves his father and mother and **bonds with his wife**, and they become one flesh (Christian Standard Bible -SBC 2nd translation).

결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그분의 복 주심 가운데서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한 남자와 그 남자와 성적으로 다른 그러나 조화를 이루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 2:14-15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창 1:28; 2:24 과 말 2:14-15 에서 사랑, 성, 결혼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을 발견하게 된다.

1) 성경이 허용한 합당한 성적 매력의 발산과 출구는 동성이 아닌 이성간의 결혼에서만 가능하다.

동성간의 성적 매력은 그 대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시에 정하신 커플은 동성이 아닌 이성간의 언약을 통한 연합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동성간의 성적 매력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발산되는 것을 정죄하고 있다 (레 18:22; 20:13; 롬 1:26-27). 성적 매력과 성적 행위는 오직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야만 가능하다. 그러기에 결혼한 남자든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떤 여인에게 성적 매력을 느껴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듯 (마 5:28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결혼한 남자든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든 어떤 남자를 보고 성적 매력을 느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이다. 성적 매력을 느껴서 부부로서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성간의 연합에서만 가능하며 그것도 이성간의 파트너가 합법적인 결혼 배우자여야 한다.

2)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성적 구조와 기능은 하나님이 가정을 위해 의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서로 다른 성을 지닌 남편과 아내만이 조화와 연합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주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 동성간의 배우자들은 결코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없다. 물론 생육과 번성이 결혼한 부부들의 유일한 성적 활동의 목적은 아니다 (아가서; 엡 5 참조. 성경적인 가정의 부부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 속에서 경험하는 성적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일종의 한 유비-analogy 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임이나 배임기가 끝난 부부들에게도 그들의 성을 통한 연합이 여전히 영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이는 배척이 아니라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 육체적인 자손을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그리스도인의 연합의 영적 연합을 제한되지만 이

땅에서 체험하게 돕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동성간의 성 행위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거스르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의 구주이시자 교회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이처럼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도록 생물학적으로 창조된 남성과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다(마 19:4):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예수님은 이에 더 하여 창 2:24 에서 말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두 남/녀를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두 사람은 나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마 19:5).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부정하는 동성애나 동성 결혼은 절대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을 수 없다.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정을 사람이 깰 수 없듯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의도 역시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결같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다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절들 참조]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 창세기 19 장 소돔과 고모라 – 하늘에서 유황 불이 내려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태워버림.

- 창 19:5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literally, “we may know them.” Contextually, “we can have sex with them -NIV; CSB).
- 19:8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니” (I have two daughters who have not **known** any man- ESV; I have two daughters who have never slept with a man – NIV; “I’ve got two daughters who haven’t had sexual relations with a man”-HCSB)
- 겔 16:49-50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이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주지 아니하며 50. 거만하여 **가증한[남자가 남자와 동침함. 레 18:22; 20:13]**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 유다서 1: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2. 레 18:22; 20:13 – 동성간의 성 행위는 사형에 해당함.

- 레 18:22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18:26-27 **가증한 일들** (근친상간, 간음, 동성간 성 행위, 동물과 성 행위).
- 레 20:13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 롬 1 - 하나님의 진로가 동성애자들에게 임하심. 동성애와 그 행위는 사형에 해당함. 그러나 그것 행하는 자들을 칭찬함.

- 롬 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 롬 1:26-27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ESV consumed with passion ; NIV inflamed with lust]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 [due penalty] 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 롬 1:32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3. 고전 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개역개정)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nor effeminate nor homosexuals -NASB]” (새번역)

4. 딤후 1:9-10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homosexuals – NASB; CSB] 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Pim Pronk, *Against Nature? Types of Moral Argumentation Regarding Homosexuality* (Grand Rapids: Eerdmans, 1993), 279: “동성간의 성 행위가 성경 어디[구약이든 신약이든]에 언급되었든, 동성간 성 행위는 모두 정죄를 받았다. 동성간의 성 관계에 대하여 신약은 구약의 판결에 어떤 새로운 것도 추가하지 않았다. 동성간 성 행위에 대한 거절은 성경의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동성 간 성 행위에 대한 정죄는 성경 어디에서도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다[“wherever homosexual intercourse is mentioned in Scripture, it is condemned. With reference to it the New Testament adds no new arguments to those of the Old. Rejection is a foregone conclusion; the assessment of it nowhere constitutes a problem”] Pronk 박사는 잘 알려진 네덜란드의 게이 신학자이다. 그가 인정했듯이 성경의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일관되게 동성간의 성 행위 따라서 동성간의 결혼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동성애가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하는가를 성경 본문으로부터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다.

2. 그럼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통 세 가지 해석을 선택한다.

첫째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성경이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성경이 인간 저자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사상들 중 어떤 것들을 시대에 뒤쳐진 것들로서 오늘날 update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에 대한 태도라고 믿는다. 이들은 성경에서 동성애를 정죄하는 가르침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들인데 옛 고대 사상에 물든 보수주의자들이 고집을 피워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적어도 자신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동성애와 동성간의 성 행위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성경의 정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첫번째 항변은 소위 게이 크리스천 사이에서도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

두번째 동성애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되 성경이 정죄하는 것은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폭력적 집단 강간 행위라는 것이다. 이 두번째 견해를 옹호하는 소위 게이 크리스천들은 창 19 장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이 롯에 집에 들어온 남자들(천사들)을 집단 강간을 행하려고 함)이나 사사기 19 장 (레위인의 첩 사건을 기브아 남자들이 집단 강간함)에 대한 성경의 정죄는 동성애나 사랑을 기초로 한 동성간의 성 행위가 아니라 폭력적인 집단 강간에 대해 정죄한다고 항변한다. 물론 창 19 장과 사사기 19 장에 있는 사건 모두 집단 강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단순한 집단 강간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성욕이 빚어낸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두 본문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창 19 장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남자들(젊은 남자들부터 나이든 남자들까지)이 롯에 집에 몰려와서 그 집으로 들어간 두 남자와 성 관계를 맺겠다고 위협을 했다. 창 19:4-5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the men of the city, the men of Sodom, both young and old, all the people to the last man, surrounded the house. 5. And they called to Lot, “Where are the men who came to you tonight? Bring them out to us, that we may know them”). 두 도시의 남자들이 한 집에 들어간 남자 손님들과 성 관계를 갖겠다고 협박한다. 5 절에 있는 “상관하겠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 영어로는 “안다”라는 뜻의 know”로 번역되었다.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 그냥 어떤 정보를 안다는 뜻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성 관계”를 한다는 뜻이 있다. 그런데 창 19:8 에서 롯이 자신의 두 처녀 딸을 묘사하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남자들을 아직 알지 못했다”이다. 즉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숫 처녀라는 말이다. 정리해 보자면, 창 19 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단순히 이성간의 집단 강간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의 개입으로 소돔과 고모라 남자들에 의해 집단 강간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두 도시를 완전해 멸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일이 된다. 두 도시가 멸망하게 된 것은 유다서 1:7 에 따르면 동성애의 정욕으로 인한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다른 육체를 추구한 것 즉 이성간의 성적 연합이라는 본성을 거스리고 동성을 향한 성욕을 채우려 했던 죄악과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사 19 장은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 강간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기브아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그의 첩이 아니라 그 레위인 남자였다. 또한 기브아 여자들이 아니라 기브아 남자들이 몰려와 레위인 남자와 성 관계를 하겠다고 위협했다. 19:22-23 에 “그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the men of the city, worthless fellows, surrounded the house, beating on the door. And they said to the old man, ‘Bring out the man who came into your house, that we may know’ [have sex with] him)” 22 에 있는 “관계한다” “알아본다”는 문맥에서 “성 관계를 하겠다”라는 뜻이다. 이는 25 절에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 준 뒤 그들이 그 첩을 집단 강간했을 때 성경은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And they knew her)”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첩은 불량배들의 집단 강간으로 죽음에 이르는 비극을 맞게 된다. 이 사건으로 기브아 족속은 남자들이 거의 전멸하게 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이 정죄한 것은 이성간의 집단 강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발하게 만든 동성간의 성 행위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세번째 방법은 성경이 정죄하는 것은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폭력적인 동성간 성행위를 정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세번째 주장은 1 세기 고대 그리스-로마 남자들의 성 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로 1 세기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 그리스-로마 사회에서 귀족이나 자유민들 중 적지 않은 남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지위, 힘을 자랑하기 위해 종종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의 남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하였다. 한 예로 로마제국의 첫 15 명 황제들 중 14 명이 자신들이 아내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과도 성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많은 자유민 남자들이 어린 소년들이나 이방인 신전에 있는 남창들이나 집에 있는 남자 노예들에게 돈을 주거나 강제적으로 성 관계 갖게 했다. 그렇다고 해도 성경이 정죄하는 것이 단순히 폭력적인/억압적인 동성간의 성 행위만 정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은 집단 강간이나 폭력적인 동성간의 성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으로 동성간의 성 행위 또한 동성애 대한 연애 감정을 지닌 애정까지도 포괄적으로 정죄하고 있다.

구약의 레위기 18:22; 20:3; 롬 1:26-27; 고전 6:9; 딤후 1:10 이 이런 동성애에 대한 포괄적 정죄를 나타내고 있다. 레 18:22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본문 전후에는 형제의 아내, 아내의 자매, 동물과 성 관계를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서로 합의한다고 해도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자기 형제의 아내, 아내의 자매, 남의 아내 그리고 동물과 성 관계를 갖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레 20:13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한다. 폭력적인 동성간의 성 관계가 아니라 동성간의 성 관계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무조건 사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은 레위기에서 동성간의 성 행위에 대해 사용된 “가증한”이라는 형용사가 다른 곳에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의식에 대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레위기 18 장과 20 장에서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한 것은 일반적인 동성애자들의 성 관계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신전에 있던 남창들과 성 관계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우상 숭배적 행위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항상 우상 숭배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레 18:26 에서 모세는 모든 불법적인 성 관계, 즉 근친상간, 간음, 수간을 동성들 간의 성 행위와 함께 모두 “가증한 일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친상간, 간음, 수간은 특별히 우상 숭배의 제의적 행위와는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금지된 성 행위들이다. 따라서 레 18:22 과 20:3 에서 금지한 것은 일반적인 모든 동성간의 성 행위인 것이다.

모세의 법이 동성간의 성 행위만 금지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10 계명에서는 마지막 10 번째 계명이 곧 탐심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갖고 싶다고 욕심을 내어선 안된다. 그러나 동성애가 무엇인가? 동성을 감정적으로 소유하고 육체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인간에게 동성간의 연애 감정이나 성 관계를 허용하셨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 보았듯 인간의 연애 감정은 결혼을 목적으로 그리고 성 관계는 오직 한 남자인 남편과 한 여자인 아내라는 결혼안에서만 허용된 것이다. 따라서 동성에 대한 성 관계 뿐 아니라 연애감정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며 탐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지키지 않는 많은 법이 있는데 왜 유독 동성애자들의 성 관계나 연애 감정만을 문제 삼느냐고 항의하기도 한다. 구약 율법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1) 국가를 통치하는 시민법 2)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상징하는 종교적 의식법 3)인간의 윤리에 대한 도덕법.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신약 시대인 교회에 적용되는 것은 오직 마지막 요소인 의식법이다. 교회는 더 이상 신정 국가가 아니므로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적 통치법을 따르지 않는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완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가 명한 성전과 제사와 절기에 대한 종교적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윤리에 대한 구약의 도덕법은 신약에서 그대로 계승되어진다. 동성애와 같은 도덕법은 구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바울이 세번이나 분명하게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다. 롬 1:26-27; 고전 6:9; 딤후전 1:10.

바울은 성령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셨고 예수님이 확증해 주신 이성간의 결혼에 위배되는 동성애와 동성간의 성 행위를 인간 타락의 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롬 1:18 은 모든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음을 알려준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죄악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동성애를 언급하였다.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특별히 지적한 것은 동성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을 거스린다는 것이다. 개역 개정 성경에 번역된 “순리”는 “본성에 맞게”라는 뜻이며 “역리”란 “본성에 어긋나게”를 의미한다. 그럼 본성에 맞게 성 관계를 하는 것과 본성에 어긋나게 성 관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먼저 바울이 말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바울이 지금 이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과 유대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표현을 언급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 부터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까지 즉 플라톤 철학자부터 유대교 역사가 요셉푸스와 유대인 헬라 철학자 필로(Philo)까지 본성을 거스리는 성 행위는 동성간의 성 행위를 본성에 맞게 하는 성 행위는 이성간의 부부들이 자손 번식을 위해 하는 합당한 성 행위를 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바울이 26-27 에서 순리와 역리를 말했을 때 모든 유대인 청중과 이방인 청중은 곧 바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다.

모세 뿐만 아니라 바울도 창조 질서에 어긋난 즉 창조주의 뜻에 어긋난 동성간의 성 행위는 동성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며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초래하는 엄중한 죄인 것이다.

플라톤 – 동성애는 인간 사회와 가정을 해체시키는 정욕이다. *Laws*, 636 BC

“남자들이 자손 번식을 위해 여자와 성 관계를 갖게 될 때는 그들의 성적 즐거움은 본성에 (in accordance with nature) 따라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남자들이 남자와 여자들이 여자와 성 관계를 갖는 것은 **본성을 거슬리는 (contrary to nature)**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롬 1:26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contrary to nature)** 쓰며”로 번역되어 있다).

1 세기 스토아 학파 철학자 Musonius Rufus, XII *On sexual indulgence*.

“[결혼 이외의 상황에서 갖는 모든 성적 관계는 불법인데] 간음을 포함하여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 중에서 가장 불법적이며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것은 남자가 남자와 갖는 성 관계이다. 왜냐하면 그 대범하고 극악 무도한 행위는 **본성을 거슬리는(contrary to nature)** [그러므로 자손을 생산하기 위한 부부간의 성적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요셉푸스 (Josephus). 1 세기 바울 당시 유대인 제사장이었다 예루살렘 점령 이후에 로마 황실의 역사학자가 됨)

하나님의 율법이 허용하는 유일한 성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 (**for the procreation of children**) “**본성에 부합하게(in accordance with nature)**” 결혼의 관계 속에서 갖는 것이다. 남자들끼리 하는 성관계는 “**본성을 거슬리는(contrary to nature)**” 것이다.

필로 (Philo). 1 세기 바울 당시 유대인 헬라 철학자. *On Abraham*, 136-37.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 시킨 것은 그들의 동성애 죄가 전염병 처럼 다른 도시들에 전파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흉내 내다가 모두 멸망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한 심판의 결과였다고 주장. 필로는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 연합을 **자손을 번식하기 위하여 (for the procreation of children)** “**본성에 부합한**” (**in accordance with nature**) 것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진 동성간 성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 불법적 연합으로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정죄하는 것은 동성간 성 행위이지 동성애적 성향 (동성에 대한 애정/성적 감정) 자체는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미국 심리학 학회(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는 성적 성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남자나 여자 혹은 남자/여자 모두에게 감정적, 로맨틱한 그리고(혹은) 성적 매력을 느끼는 지속적인 하나의 패턴이다.” 미 심리학 학회는 누군가 어떤 것을 계속해서 원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성향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동성애적 성향이란 동성인 사람에 대해 연애 감정과 성적 충동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될 때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복음주의자들 중에 (성경의 무오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 재림, 이신 칭의등을 믿는 기독교인들) 이 동성애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도 자신들의 그런 성향은 죄가 아니며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음악 사역자들이 많다.

동성을 향한 애정-성적 감정과 동성간의 행위를 구분하려는 것은 21 세기에 생겨난 것이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분은 아니다. 바울은 분명히 동성들끼리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음욕이 불일듯한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죄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포함된다.

야고보서 1:14 에서는 모든 죄가 욕심 (개역개정. desire)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한국말로 번역된 욕심의 헬라어는 영어로는 evil desire (NIV); lust(NASB); desire (ESV)로 번역되었다. 정리하자면 욕심은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불법적으로 갈망하는 내면의 악한 정욕이다. 자기 욕심에 “끌리고 미혹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끼를 던져 물고기와 동물을 사냥할 때 쓰는 단어들이다. 미끼를 건 낚시 바늘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 물 밖으로 끌어내고 미끼를 넣어둔 덫을 놓아 동물을 잡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동성을 향한 연애 감정과 악한 정욕은 우리 영혼을 죄에 사로잡히게 하는 미끼와 덫의 역할을 한다. 더구나 이런 죄의 미끼를 던지는 것이 다름아닌 악한 욕구의 소유자 본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동성에 대한 연애 감정, 성적 욕구가 비록 동성간의 성 행위로 귀결이 되지 않았다 해도 그 자체로 이미 악한 욕구이므로 회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런 죄된 정욕이 우리의 영혼과 전쟁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죄된 정욕을 제거하라고 경고한다(벧전 2:11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야고보는 계속해서 1:15 에서 죄가 눈에 보이는 외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아이가 잉태되고 출산하는 과정의 유사점을 지적하고 있다. 생명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잉태되어 시간이 지나면 세상 밖으로 나오듯, 죄도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욕심으로 잉태되어 시간이 지나면 죄로 태어나고 죄가 자라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궁에 잉태된 것과 태어난 것이 본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장과 눈에 보이는 가시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잉태된 동성을 향한 연애 감정이라는 악한 감정이 아직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동성간의 성 행위라는 보이는 행동의 죄로 태어나지는 않았다 해도 본질적으로 죄라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나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만 있지 동성간 성행위를 하지 않으니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 그런 사람은 즉시 자신의 악한 욕심을 회개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도 포함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분명히 보게 된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여자에 대해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 자체가 간음에 해당한다고 정죄하셨다 (마 5:28). 예수님은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가 성적으로 매력적인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를 정죄한 것은 아니다. 아내가 아닌 어떤 다른 여자가 성적 매력에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자신의 마음 속에 아내가 아닌 그 여자에 대한 성적 욕망을 품는 생각 자체가 간음이 된다는 것이다.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에 정욕을 품으면 그 순간 간음 죄가 성립된다. 간음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서 이미 시작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주님이 죄가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마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신 것은 이미 구약의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것이다. 십계명의 제

10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이전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물건, 사람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하나님이 금하신 죄이다. 그런데 동성에 대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연애 감정을 갖는 것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사람을 탐하는 죄에 해당한다. 죄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진정 동성에 대한 결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죄임을 인식한다면 동성에 대한 연애 감정 자체를 갖지 않도록 단호하게 그런 감정을 부인해야 한다. 이런 자기 부정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날마다 죽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 진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회개하지 않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Is a person who does not repent about his homosexuality but practices it a genuine Christian?

성경은 동성애를 실천하고 있는 게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고전 6:9; 딤후 1:10).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울은 동성애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 과거에 동성애를 했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고전 6:11 에서 바울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말한다. 즉 현재 고린도 교인들 중 어떤 사람은 과거에 동성애자였으나 복음을 듣고 죄 사함 받아 새 사람이 되면서 더 이상 동성애자로 살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과거에 동성애자였던 사람이거나 동성애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하면서도 그 죄의 강력한 유혹에 때때로 굴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거듭난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 따라서 동성애를 하나의 삶의 패턴으로 유지하면서 죄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특별히 레 20:13 은 동성애자들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있다. 그 정도로 죄 중에서도 아주 심각하여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또는 "혐오스럽다"라는 단어를 써서 동성애 죄를 정죄하신다. 롬 1:10 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로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 모든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위에 임하신다고 말한다. 롬 1:26-27 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불의하고 불경건한 삶의 한 형태가 동성애적 삶을 보여준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만일 누군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게이 유전자를 물려 받은 사람들은 동성애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동성애적 삶을 죄라 규정할 수 없다? 게이 유전자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적 연구 결과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2585-6>

NATURE
29 AUGUST 2019

No 'gay gene': Massive study homes in on genetic basis of human sexuality

Nearly half a million genomes reveal five DNA markers associated with sexual behaviour — but none with the power to predict the sexuality of an individual.

Science News. August 30, 2019

There's no evidence that a single 'gay gene' exists

Instead, a combo of small genetic factors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affects partner choice

That's the conclusion of a paper by an international team of researchers, co-led by Benjamin Neale of the Broad Institute of Harvard and MIT, published today in the journal *Science*.

8 월 29 일 미국 인터넷 뉴스들과 과학자들의 블로그에는 저명한 사이언스 과학 잡시사에서 발표한 동성애에 관련된 기사로 시끄러웠다. 국제적인 유전학 연구원들이 영국과 미국인들 약 47 만명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와 유전적 영향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동성애적 행위와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5 개의 DNA 특질을 발견했지만 그 어느 특질도 그 자체만으로 자동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한 인간이 동성애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유발하도록 결정적 영향력은 아닌 미미한 영향력을 지닌 유전적 특질에다가 후천적으로 동성애적인 환경이 더해지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적 성향을 결정하는 어떤 단일 유전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보다 더욱 더 확실해 졌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나는 "원래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다 (Born this way!)"라는 주장은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그것은 동성애자였다가 이성애자로 바뀌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동성애가 유전적인 것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라면 후천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백인으로 되지는 않는다.

설령 동성애를 결정짓는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해도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어떤 행위에 대한 유전적 성향은 그 행동의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일반적인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 있다. 이 남자가 다른 사람보다 유전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 되어 성욕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성 폭력이나 간음을 했을 경우 그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죄인 것이다. **알콜 중독자의 자녀가 비 알콜 중독자의 자녀 보다 알콜 중독에 걸릴 확률은 4 배가 높다고 한다**(<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05960>). 2009.12.25 07:37 “알콜 중독자 절반 이상이 가족 중에 알콜 중독자가 있으며, 이들 중 90% 이상이 친척 중 2-3 명의 알콜 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알콜 중독자의 자녀가 또 다른 한 명의 알콜 중독자가 되어 자녀를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돈을 탕진하고 비 인격적 비 이성적 언행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또한 4 배의 중독 확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중독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노 조절 장애도 유전적 요소가 있는가? 심리학자 Carol Lee Stevenson (Anger Management Specialist)는 7/11/2018 “Can a bad temper be passed down through genetics?”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https://www.quora.com/Can-a-bad-temper-be-passed-down-through-genetics>] 모든 인간의 특징들은 유전적 요소가 있다. 그러나 쉽게 분노하는 유전적 요소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과 그 유전적 요소가 발산되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쉽게 분노하는 유전적 요소를 받게 되었다 해도 인간은 그것을 통제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만일 동성애적 성향으로 향하는 유전적 요소가 정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도덕적 행위이다.

성경적 죄론과 심판론의 필요성.

성경은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불리운다)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말한다 (롬 5:19). 따라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들이며(엡 2:1) 살아가면서 모두가 죄를 짓게된다(롬 3:12). 그렇다고 성경은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무죄로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가 죄성을 아담으로부터 물려 받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려 받은 죄성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7)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 5:10)

생명책이 펴졌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2-13)

